

# 목포시청 공영주차장 오늘 개방... 주차난 해소 기대

주차장 262면 설치 135면 증가  
주차폭 2.3m서 2.5m확장  
층별 주차대수 현황 확인  
급속 전기충전기 8기 설치

신축된 목포시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7일부터 무료 개방돼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편의 향상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청 방문 민원인과 직원 및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8일 준공식을 갖는다.

시청 야외주차장에 건립된 공영주차장 건축물은 옥상면을 포함한 2층 3단의 철골구조로 연면적 4950㎡의 주차장 262면으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도비 25억원, 시비 33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시청 총 주차장 364면에서 499면으로 135면이 늘어나고 주차 1면당 주차 폭도 2.3m에서 2.5m로 확장되면서 시청 민원인과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 시민과 시청 직원들은 7일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에 진입할 때 층별 주차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설치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급속 전기충전기 8기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확정됨에 따라 건물주차장 외의 야외공간에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청 공영주차장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너그러운 이해로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전기차 사고로 국내 피해사례가 여러 발생되어, 혹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되도록 전기자동차는 시청 야외주차장을 이용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시청 방문 민원인과 직원 및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목포시 제공

## 저소득층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포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환자·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암환자에게 223건(2억6700만원), 희귀질환자에게 8361건(5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암환자에게 137건(1억7400만원), 희귀질환자에게 3494건(3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성인과 소아 암환자로 나누어져 있다.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감경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을 연중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1272개(희귀질환 1248개·중증난증질환 24개)로 올해는 육수수 전분을 먹어야 하는 당원병 환자에게 전분 구입비 지원이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는 목포시 보건소 의료비담당자(061-270-89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용해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지난 2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목포시 제공

## 용해동바르게살기위원회, 어르신 보행보조기 전달

목포시 용해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순자)가 지난 2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실시한 '행복한 동행, 든든한 길동무'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지원한 보행보조기는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밀며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자형태로 되어 있어 외부활동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용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보행보조기 사용방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도 세심히 살폈다.

김순자 위원장은 "작년에 실시했던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의 호응도가 좋아 올해도 추진하게 되었다"며 "산책하기 좋은 가을날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회용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성료

3일간 다회용기 16만7천개 사용  
매일 고온 세척·살균 후 재공급

목포시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추진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3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총 16만 7000여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이는 시 추산 8.8톤의 폐기물

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축제시작 전 음식점 모집, 공고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했으며 식음준을 포함한 전 부스에 다회용기를 제공했다.

방문객들은 다회용기 사용 후 직접 반납했고, 목포시는 매일 수거된 5만개 이상의 다회용기를 고온·고압 세척과 건조, 살균과정을 거쳐 축제장에 재 공급했다.

축제장 내에 설치된 클린존에 방문객들

이 직접 분리배출을 하도록 유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다회용기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5% 이상이 만족을 선택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축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목포시 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맹곤)가 지난달 27일 민·관 협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봉사는 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위해 협의체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5명이 집안 방치된 쓰레기 1톤 가량을 수거했다.

대상자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심각한 알콜리즘과 위생관리가 되

지 않는 환경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으나 대청소로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비했다.

김맹곤 위원장은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장애인한마당큰잔치 성료

목포시는 지난 2일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장애인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목포장애인한마당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열세 번째로 개최되는 목포장애인한마당큰잔

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및 장기자랑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그룹사운드 리턴즈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시장 표창 시상식에 이어 장애인단체·시설 6개 팀의 기타 연주,

노래, 댄스, 장애인 태권도 시범, 난타 공연 및 장기자랑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됐다.

장은채 목포장애인한마당큰잔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한마당이 되어 뜻깊었고 많은 도움을 주신 장애인 시설·단체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